

‘신화적 상상력’의 날개

[서평] 김현(2016), 『그리스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52쪽.

김재홍*

괴테와 시적 상상력

하인제는 1774년 9월 13일(K. 슈미트[K. Schmidt] 앞)로 기록된 편지에서, 괴테를 두고 “그가 우리와 잠시 머물렀었네. 그는 25세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천재요, 힘이요, 씩씩함이었네. 감정이 흘러넘치는 마음, 독수리 날개를 가진 불꽃의 정신으로, 그는 깊은 샘처럼 풍부하게 솟아오르고 흐르네(qui ruit immensus ore profundo)”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괴테는 자신의 생애를 기술한 책 제목을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이라고 붙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데에 그 어떤 공상적, 허구적 요소를 삽입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기술하고 싶어 했다. 진실이란 그의 생애의 고립되고 흩어진 사실을 주워 모으

* 정암학당 연구원

는 것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에 충분할 만큼의 생생한 의미를 집어 넣어 주어야 한다. 물론 ‘현실’은 마냥 외면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 집착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미건조하게 지나친 현실에 매달려 ‘시적 상상력’이 없이 삶을 산다는 것 또한 그 얼마나 비참하리요!

『엑커만과의 대화』에서 괴테는 “실제적인 진실에 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불만의 뜻을 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낯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자신들의 상상력이 아주 기이하게 전개될 수 있는 나라와 환경을 더 좋아하네.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것에만 매여서 ‘시적 상상력’이란 조금도 없는 편협하기 그지없는 요구만을 일삼고 있네.”(1825년 12월 25일) 현실적인 것을 다루는 역사의 경우는 상상력의 결여를 허용하는가? 그렇지 않다. ‘살아 있는 현실의 기록’인 역사 또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역사는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죽은 박물관의 전시장이 아니다. 진정한 역사가라면 ‘현실과 시적 상상력’이란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한다. 역사가는 경험주의로서 사실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자이며 탐구자이다.

올바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facts)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상상력(imagination)이 가미되어야 한다. 이 두 요소의 적절한 역사적 종합, 다시 말해 역사적-현실적 사실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결합되어야 올바른 역사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가는 문학가이어야 한다. 시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보다 더 현실적이다. 문학은 현실보다 ‘더 그림직한 세계’를 그린다. 역사가와 달리 문학자에게는 마땅히 현실을 차분히 직시하는 ‘시적 상상력’을 더 필요로 한다. 진실을 추구하려는 자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선을 향해야 한다.

시적 상상력 -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도대체 시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벗어난 공허함으로 향하는 기억일까? 우리의 주인공 김현은 “시적 상상력은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며 한 사람에게 고유한 삶의 영역과 가치를 만들어주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힘”(33쪽)이라 규정한다. 이 힘은 “보이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보이는 않는 사연과 내막을, 실존의 은밀한 비밀을 그려 내는 힘”이다(33쪽).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이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용솨음치려 한다. 한 삶이 인간의 소소한 현상의 범주에 갇히고 사실에 매몰되게 되면 인간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실을 놓칠 수 있다. 인간 정신의 발전 가운데 이 힘이 넉넉하게 발현되게 되면서 “보이는 것 너머를 꿈꾸며,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자유롭게 상상했던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시적 상상력은 인간 정신의 원천으로,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가능하게 했던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냈던 힘이고, 이것을 넘어 세계의 ‘진상’을 찾아나가는 철학적 상상력, 초월자를 향한 종교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김현은 이렇게 말한다.

“시적 상상력은 시인에게만 필요한 창작의 원동력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의 원천이며 뿌리라고 해도 좋다. 보이는 것 너머를 꿈꾸며,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자유롭게 상상했던 그리스 신화. 그것은 서구인들의 문화와 문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학적 상상력의 원형이라 해도 좋다. 더 나아가 보이는 현상 너머로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와 요소를 찾으려고 했던 서양 지성의 형이상학적, 철학적 상상력과 절대적인 초월자를 찾으려고 했던 종교적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34쪽)

요컨대 김현의 생각에 따르면 문학적 상상력인 시적 상상력이 인간 정신사의 근원적 힘이었다는 것이다. 어찌 생각해 보면 시적 상상력이야말로 모든 문학 형태를 만들어 가는 뿌리요, 원리요, 아르케(출발점)였다. 독일의 고전 문헌학자인 브르노 스텔은 유럽 문학 장르의 발전을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렸던 서사시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정동(精動)의 자기 표출인 서정문학의 단계, 이어서 인간 삶의 중심이었던 아고라 곁에서 인간의 절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에 동반하는 희로애락을 공연했던 극장에서 비극(드라마) 문학으로 전개된다고 이야기한다(브루노 스텔, 『정신의 발견』, 김재홍 역). 이쯤에 이르러야 시적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한 인간 정신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산문 형태의 역사와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신화적 상상력은 꿈이 아니다. 신화적 상상력은 늘 논리적 사고와 대립해 왔다. 애초에 신화의 세계에서 신들이나 영웅들의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 자연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 그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게 되자마자, 신화의 인과적 설명은 자연 과학적 인과적 설명 방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신화적 상상력이 자연을 넘어 멀찍이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 감정, 소망, 결의 등을 신의 개입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논리적 상상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신화적 세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두 영역은 대립적이면서 서로가 중첩되는 영역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그럼에도 신화와 논리는 인간 정신의 두 역사적 단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브루노 스텔은 “이 두 개념은 서로가 엄격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적 사고 가운데도 많은 다양한 논리적 요소가 침투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이행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행해진다. - 아니, 이 과정은 결코 완전하게 완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브루노 스텔은 이렇게 신화적 사고를 정리하고 있다.

“신화적 사고는 감수성을 요구한다. 논리적 사고는 행동을 요구한다. 사실상 논리적 사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의 개인적인 정신을 의식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발달하고 있다. 논리적 사고는 완전한 자각이다(Wachsein, 깨어있음). 반면에 신화적 사고는 모든 이미지와 사상이 의지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은 채, 붕 떠있는 상태에 있는 꿈과 접하고 있다.”(『정신의 발견』 제10장 ‘비유, 비교, 은유, 유추 - 신화적 사고에서 로고스적 사고에로의 길’)

신화는 인간 상상력의 보편적 언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자기 발견의 도구로서 신화적 상상력은 인간 영혼과 세계에 다가서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신화적 상상력은 꿈, 신화, 인간 정신의 원형에서 인간의 비전과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신화를 인간의 공상이 만들어낸 환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보았던 에른스트 카실러는 신화를 인간이 그 안에 사는 ‘삶의 형식’으로 보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상징 형식(symbolische Form)이라는 것이다. 신화의 근저에는 통일적인 인간 이해와 세계 이해가 존재한다. 요컨대 신화의 세계는 순전히 꾸며낸 또는 고안된 세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필연과 실재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는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다.¹⁾ 신화적 상상력은 이 세계를 신화라는 ‘상징 형식’으로, 다시 말해 의미의 세계로 가득 채우는 인간의 자기 이해라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라는 것

이 책의 저자 김현 역시 그리스 문학 장르의 발전에 따라 서사문학, 서정문학, 비극의 순서로 자신의 논의를 차분히 전개하고 있다. 그는 브르노 스텔의 ‘장르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있다.

1) 에른스트 카실러, 『상징형식의 철학』, 제2권,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14.

“우리들은 유럽 문학에서 서사시, 서정시 그리고 희곡(드라마)이라는 다양한 시의 장르가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위대한 시문학 형식으로서 이 장르들을 창조했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유럽 여러 민족에게로 이 장르들을 퍼지게 했던 그리스인들에게서 이 각 장르들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개화했다. 즉 서사시의 경향이 끊어졌을 때, 서정시가 나타났고, 서정시가 그 종말에 다가 갔을 때, 희곡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시들의 장르는 이것을 만든 나라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성과이고, 그 표현이었다.”(228-229쪽)

저 서양 정신사를 지배하는 문자적 근원은 필시 호메로스의 서사시일 것이다. 우리는 문자적 전통에 앞서 오랄(구전) 문학 전통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다. 어떻게 오랄 전통이 문자화되었을까? 오랄 전통이 어떻게 편집된 형태의 ‘그리스 신화’가 되었을까? 여기서 김현은 프랑스 고전학자 장 페에르 베르낭의 생각을 끌어들인다. 어떤 이야기꾼이 서술을 시도하기 전에 존재했던 세월의 깊이를 지닌 이야기(mythos)인 “신화적 이야기는 개인적인 발명이나 창조적인 공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와 기억력에 속한다. 기억과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화는 ‘짓기’(또는 시가; poésie)처럼 여겨진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음유시인들의 ‘입말짓기’(poésie orale)의 방식에 좇아 이루어지고, 거듭해서 청중 앞에서 ‘짜맞추어 노래’되었으며, 그것이 글쓰기 작성의 대상이 되어 하나의 텍스트로 엮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편집된 문헌으로서 ‘그리스 신화’는 작가가 있는 수많은 작품과 작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분산되어 전해지는 단편의 수집을 통해서 형성되었다(70-71쪽).

시적 상상력을 통해 본 그리스 문학의 유산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인 김현의 독특한 문학 독해 방식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고전학자 브르노 스텔은 고전 문학에서 전치사, 부사어, 형용사 하나까지 주목하고 훑아보면서 그 생생한 의미를 복원시키면서 되새겼다. 김현은 신화적 상상력을 문자적 문학 읽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주변의 삶과 인생의 의미와 결부시키고 있다. 신화적 상상력이 결여된 현실에 매달린 삶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포기하고픈 세상에 사는 삶일까?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 무엇을 얻어내는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내면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인들의 ‘신화적 어법에’ 익숙해진다면, 그들의 ‘신화적 외연’ 역시 우리 삶의 진실과 사실에 적절한 지시 대상을 찾을 수 있으며, 그만큼 그리스 신화는 우리의 이야기기 될 수 있을 것이다.”(93쪽)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놀라움(*thaumasia*)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았고, 그것을 경외에 찬 눈을 통해 바라다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놀라움과 경외로 바라다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신(*theos*)으로 신격화시켰다. 그들에게 신은 ‘인간의 힘과 인식의 한계를 너머’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을 상상했다. 그저 주어진 현상으로서의 태양은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태양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미건조하지만, 살아있는 활동성은 보여주지 않는다. 태양을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으로 인식하는 순간, 매일 같이 떠오르는 태양은 “날마다 새로운 태양”(헤라클레이토스)이 되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태양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진실과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고 새날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다.

김현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다. 잔치 벌이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한데 묶어 삶의 환희와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식탁마다 가득한 빵과 고기를 차려놓고, 술 섞는 동이에는 술이 그득하고, 시동들은 술잔마다 술을 따르고, 여기에 노래가 흐르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가? “이것이야말로 제 마음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입니다.”(『오뒷세이아』 제9권 11행)

호메로스 세계에서는 현세적인 세상만이 의미 있고, 즐겁고, 아름답고, 진정 달콤한 세상이다. <오뒷세이아>(제11권 487-8행)에 보면, 하데스로 찾아간 오뒷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아카이오인들이 생전에 그대를 신처럼 존경했고, 지금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라고 위로하면서,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오”라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을 받아 아킬레우스는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죽은 자들을 통치하느니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종살이나 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요컨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이란 이미 죽기로 정해진 것이니 어찌하랴!

독서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의 의미에 맞닥치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란 게 있다. 죽지 않는 신에 대비해서 그리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을 *brotos*, *thanatos*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삶을 갈구한다. “영원한 삶이란 초월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들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잊히는 삶이다. 그것은 좋은 것일까?” 더 좋은 삶은 ‘망각되지 않는 삶’이다. “그런 삶이 빛나는 것은 죽음 때문이다.” 어떻게 죽는 것일까? “인간의 유한한 세계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동시에 삶을 완결

하는 마침표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그때까지 살아 온 삶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규정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서 ‘찬란한 이름’으로 기억될 때 삶의 완성은 이룩되는 것이다(159-160쪽).

우리는 『메데이아』란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남편의 모욕과 배신에 치를 떠는 메데이아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다.

“가련한 내가 당한 이 고통!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움 받는
어미의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아버지와 함께 사라져 버려라! 온 집도
무너져버려라!(『메데이아』 111-114행)

분노에 찬 메데이아의 복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메데이아의 악마적 행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신화적 상상력이 보여주는 저 극단의 행위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악마적 행각 뒤에 깔려 있는 ‘사실과 진실’은 무엇일까? 누구는 물을 것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위대한 고전이란 말인가? 김현은 이렇게 답한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를 도덕적인 교훈으로 교화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파리를 틀고 있는 욕망을 끌어 내 극단의 상황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모습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폭발하는지, 그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실험하고 있기 때문이다.”(311쪽)

이렇듯 우리는 이 책 전체를 통틀어 무수한 신화적 이야기와 인간 심층을 울리는 많은 인간감정의 변전(變轉)을 경험할 수 있다. 신화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녹아 살아 있는 신화적 사건 장면마다 저자는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장면보다 더 재미난 철학적·미학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런 능력은 아무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독서와 엄청난 학구적 고민과 씨름하며 상상력의 날개를 펼 줄 알았던 학자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로마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을 기다리며

물론 신화를, 또 고전문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독서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김현의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고전 이해’를 섬세한 정신의 가멸찬 움직임을 통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성을 유지하는 문학 이해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정신의 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물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데(Wohin es geht, wer weiß es? Erinnert er sich doch kaum, woher er kam)’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화적 상상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저 부서진 거울의 흩어진 단편들(disjecta fragmenta)을 늘어놓고 엮어내는 것만으로 고전 이해는 반듯하게 설 수 없다. 고전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참된 인간, 개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에 대한 직관을 통해 그 신화적 표상 속에서 그려낼 줄 아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라고 했던 것이다. 독자로서 우리가 그의 시적 상상력의 깊이와 고전에 대한 천착을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김현의 『그리스 문학의 상상력』을 읽는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괴테의 말처럼, “현실적인 것에만 매여서 ‘시적 상상력’이란 조금도 없이 편협하게” 살아가는 일차원적인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화와 문학을 통해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의 자세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서평을 마치며, 저자가 ‘책을 끝내며’ 훗날의 숙제거리로 남겨 두었던 ‘로마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을 접할 그 날이 그리 멀지 않기를 바래본다.